

온라인도박에 가상화폐까지 ‘한탕주의 증후군’

광주·전남 청년들도 가세...등록금 날리고 사채 빌리기도 중독 증세 늘면서 광주 한달 평균 60여명 도박 관련 상담

직장인 조모(31)씨는 최근 대학교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창인 B가 가상화폐 투자로 20억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조씨는 지난 2008년 군복무 시절 불법 스포츠도박을 접한 이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토쟁이(스포츠도 등 스포츠 도박을 하는 사람)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경우 전 세계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루 24시간이 도박의 연속이었다.

조씨가 새롭게 접한 가상화폐도 스포츠

도박처럼 하루 24시간 동안 투자가 가능한 구조여서 별다른 거부감도 없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비트코인 골드’에 대출금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1개월 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골드는 31일 현재 15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조씨는 요즘 하루종일 가상화폐 시세 확인 등을 위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다.

조씨는 “주변에 불법 스포츠도박은 물론 가상화폐조차 도박처럼 하는 20~30대가 많다”면서 “가상화폐도 장기적인 투자

목적보다는 도박처럼 ‘한방’을 노릴 경우 막대한 재산손실이 뒤따를 수 있지만,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끊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 도박열풍이 거세다. 기존에는 불법하우스 등 음지에서 도박을 했다던, 요즘은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하루종일 도박에 빠지는 양상이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한 밤 중에 도시를 확인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지역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와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박중독 상담전화인 ‘헬프라인’(1366)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과 불법 사설스포츠도박, 사다리게임 등에 이어 가상화폐 중독을 호소하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엔 가상화폐와 관련된 중독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국도박관리센터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016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 접수된 상담의뢰 285건 중 불법 사행성 온라인도박이 211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드 21건(7.4%),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도) 14건(4.9%)이 뒤를 이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관계자는 “최근 10~20대들이 재미와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다가 도박에 중독돼 대학 등록금을 날리거나 은행·가족·친

구에게 돈을 빌리고, 결국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센터에는 한달 평균 60여명이 도박 관련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40명은 광주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한은경 광주센터장은 “도박중독자의 경우 빚을 대신 갚아주기보다는 우선 도박 등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 센터 내의 설문 항목에 가상화폐를 기타로 분류해 도박으로 규정·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신해철 집도의 지난해부터 해남서 근무 법정구속에 담당 입원환자 치료 애태워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지난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그가 근무하던 전남지역의 병원에도 불명이 튀었다.

지난 31일 해남지역 모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이 병원 외과과장으로 근무하던 강씨가 구속돼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가 담당 입원환자는 총 27명으로, 대부분 고령의 육장·암 환자였다.

병원측은 환자들에게 타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해남 지역에서 육장·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강씨는 의료사고가 불거진 지난 2014년 S병원에 이직의사를 통보했고, 같은 병원의 소개로 해남의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씨의 지인들은 “지역에서 봉사하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씨는 법정구속된 지난 30일 재판부에 환자들을 정리할 시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심한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혈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산불 예방진화 우리가 나선다” 광주 북구지역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이 지난 31일 각화동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주차장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대원들이 진화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디도스 프로그램 판매·구매자 무더기 적발

온라인 게임 서버 다운 등 피해

온라인 게임 서버를 다운시키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프로그램 등을 판매한 10대 청소년과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광주경찰에 무더기 불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도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19)군과 김모(20)씨 등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디도스 판매금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45명으로부터 5만~9만원씩 총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구매자 8명은 프로그램으로 PC

방과 게임회사 등에 피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뉴질랜드의 한 대학에서 유학중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군이 판매한 프로그램은 일명 ‘누킹(Nuking) 프로그램’으로 특정 게임 사용자 컴퓨터 IP를 알아낼 수 있는 악성코드 등을 보내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용 중인 온라인게임 서버를 다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은 인터넷에서 해킹프로그램을 다 운반거나 직접 만들어 판매했으며, 구매자들은 쉽게 게임을 이기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머지 구매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발 ‘미투’ 파문 확산...대검 대규모 진상조사단 꾸려

광주·전남여성단체 오늘 규탄 집회...법조인들 엄중 조사 촉구

서지현 검사가 범무부 고위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 31일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여성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및 수사관 등이 조사단에 합류

한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다. 기존에서 검사의 폭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는 조사단에 업무를 넘기면서 업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은 1일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 내 성폭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 검사의 대학 동문인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과 이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동창들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서 검사를 둘러싼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엄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검사는 광주 출신으로 목포여고를 졸업했다.

한편,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이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어떤 추행을 당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편견 깨기부터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여대생 영아 유기 자작극 왜?

아이 키울 길 없어서...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 유전자 확인 제안에 실패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다”

광주 지역 대학에 다니는 김모(여·23)씨는 지난 30일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떨었다. 같은 날 영아의 낱씨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해 화제를 모았던 그 여대생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초 헤어질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남자 친구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차마 가족에게 알릴 수 없어 큰 옷을 입고 다니며 임신 사실을 숨겼다.

겨울방학을 맞은 김씨는 목포집에서 지내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지난 29일 광주에서 사는 두 살 위 언니 집을 찾았다. 다음날 새벽 3시30분께 김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김씨는 “울음 소리를 듣고 복도에 나가보니 갓 낳은 아이가 있었다”고 언니 부부에게 거짓 말했다. 경찰에 유기된 신생아로 신고해 영아보호소에 보낼 생각이었다.

김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실패했다. 김씨는 “아이를 다시 데려와 키우고 싶다”며 침울한 눈물을 흘렸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애초 아이를 유기하지 않았고, 김씨의 거짓말에 속은 형부가 신고했기 때문에 김씨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파에 의자 태우다 불낸 중학생

○영하 4도에 달하는 한파에 몸을 녹이려고 버려진 의자를 태워 주차장에 불을 낸 중학생이 컷등에 붙은 그을음 때문에 경찰에 달미.

○지난 31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A(13·중2)군은 지난 25일 오후 2시 20분께 광산구 신가동 모 건물 3층 주차장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라이터로 사무용 의자에 불을 지르고 달이나 소방서 추산 60여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냈다는 것.

○범행 현장 인근에서 태연히 배회하던 A군은 컷등에 남아있는 그을음을 눈여겨 본 경찰에 붙잡힌 뒤 “친구들이 말했지만 너무 추워 불을 피웠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공장 매매 (소촌공단)

◆ 1급 자동차 정비공장 ◆

소촌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 ① 토지 430평 건물 112평
- ② 운수 IC 5분
- ③ 신축건물 (2015년 준공)

◆ 매매가 : 16억3천 사정상 급매 (용 6억4천)

010-6670-9800 062)382-55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1월초 개강)

- 1) 이론 실전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 2) 실전 투자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
- 3) 경매 평생반
 -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 ① 북구 신원동 용두주공아파트 (24평) 감정이 1억3천3백 → 최저가 9천3백
- ② 북구 일곡동 현대아파트(24평) 감정이 1억4천2백 → 최저가 9천9백
- ③ 서구 쌍촌동 광명하이츠 (상가) 감정이 5천3백 → 최저 2천9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법률 경매 (추대신경매)

- 1) 서구 내방동 (건물) 토지:80평 건물:114평 감정:3억6천 → 최저:3억6천
-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 3) 서구 금호동 토지매매 매대가 13억5천 8백
- 4) 나주 성북동 (근린주택) 감정:32억 6천 → 최저:18억 2천
-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9억6천 → 최저:6억7천
-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7백 → 최저:1억8천7백
- 7) 남구 월산동(근린주택) 감정:9천6백→최저9천6백
-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 9) 화순 도곡면 천암리 (무인텔) 감정:37억4천 → 최저:20억
-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 11) 전남 화순군 춘양면 (토지) 토지:984평 감정:5천3백 → 최저:5천3백

A.P.T·주택·공장·토지 (기타)

-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 ④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 아파트 (24평) 감정 2억 → 최저 1억 4천
- ⑤ 북구 운암산코아루렉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 ⑦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 ⑧ 서구 마름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 ⑩ 화순군 능주면 잠림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 ⑪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숙박,콘도) 감정 11억4천5백 → 최저 7천6백
- ⑫ 전남 영암군 삼호읍(공장) 감정 14억8천 → 최저5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